

[여호수아 성경학교]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의 선교

한정국 선교사 / 2001 / 페이지수: 2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의 선교’라는 제목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창의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이다.

오늘은 전문인 선교관점에서 창의적 접근지역을 살펴보겠다.

1. 직업은 단지 비자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대부분 전문인으로 선교지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직업을 비자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원칙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예로써 바울의 직업을 볼 때 바울은 비자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텐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바울은 이 직업을 통해 수많은 현지 사람들과 교류를 나눌 수 있다. 또한 유대인으로서 바울과 같이 전문 직업을 갖는 것은 그들의 문화의 일부였고, 그는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 그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실행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직장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갈 때 그 직업을 부업으로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어떤 도움, 반응을 줄 수 있는가와 그 직업을 통한 하나님 안에서의 문화적 사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지를 생각해야 한다.

즉 직업을 현지인과 서로 필요한 공통분모로써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 사실 닫혀있는 선교 지는 없다. 오히려 그 나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환영받으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2.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비록 IMF로 인해 힘들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 각국으로부터 도전이 되고 있다.

선교역사에서도 비록 늦게 출발하였지만 최후의 개척자로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은 많이 남아 있다.

이 세상 인구를 60억으로 볼 때 카톨릭, 이단 포함 1/3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1/3은 이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 즉 전도지역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1/3, 20억은 전혀 신자를 만나 볼 수 없는 선교지역, 혹은 미전도 족속, 미복음화지역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소수의 전도자들만이 이들 선교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웅적 선교 개척자는 계속 나와야 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의 성과를 고무해 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선교에 대해 적극 투자를 해야 한다.

선교를 위한 S.O.S(사회 간접 자본) 예를 들자면, 종족 리써치 학회, 선교 협의회, 선교신용평가회 등이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구태의연한 방식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끊임없이 도전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안주하려 할 때, 안정되려 할 때, 문화의 유입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려고 할 때 교회는 타락하게 하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QT, 교리, 공동생활에만 치우쳤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나는 온누리교회가 계속 하 목사님의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도(보냄을 받은 자)적 책임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 출처: 온누리신문